



우리나라 장내 기생충란 보유율의 변동

주 정 균

일반 국민들은 기생충학 교실에
들러 우리나라 장내 기생충의 감염
율은 얼마나 될까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를
당할때 마다 숙시원하게 답을 할수
없는 것, 답답하기만 하다. 기생
충학 교실에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율은 높다
고 하나 과연 장내 기생충란의 보
유율은 얼마나 될까?

문헌과 실험을 통하여 알아 보기
로 하자.

1900년~1919년 사이에 칠판법으
로 조사한 우리나라 중요 장내 기
생충의 보유율을 보면 회충은 78%
편충 92%, 12지장충은 52%, 간흡
충 26%, 조충 0.8%, 1920~1929
년 사이에는 회충 45%, 편충 55%
12지장충 19%, 간흡충 0.8%, 조

충 0.4%, 1930~1939년에는 회충
71%, 편충 38%, 12지장충 15%,
간흡충 0.3%, 조충 6.1%로 기간
중 가장 낮은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다.

1940~1949년은 해방과 해방후
많은 피난민과 해외귀환 동포가 입
국하게 되었으며 사회질서가 혼란
하게 되어 기생충 보유율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하겠다. 회충 83%,
편충 80%, 십이장충 45%, 간흡충
8%, 조충 0.1%로 나타나다가 1950
~1959년에는 6, 25 동란으로 사회
질서는 문란하며 식생활도 상당히
곤란하였으나 1940년대에 비하면
기생충란의 보유율은 저하되고 있
다. 회충 72%, 편충 45%, 십이장
충 28%로 상승하였고 간흡충 30%
로 상승한 것은 부산, 영남, 간흡
충 오염지대에 많은 주민이 집중하



였다는 것과 그곳에서 담수어를 생식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하리라고 생각된다.

1960~1964년 사이에는 회충 73%, 편충 75%, 십이지장충 9%, 간흡충 4%, 조충 6%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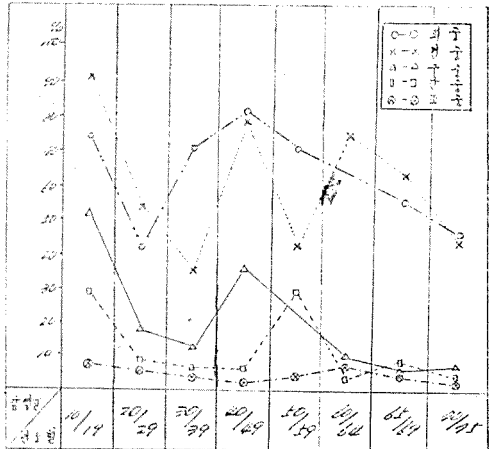
이와같은 상태하에서 회충박멸사업의 곤란성을 감안하고 기생충박멸협회가 창설되고 회충박멸이 기치를 올리게 되었다.

1964~1969년 사이에는 민간에서는 박멸협회가 무엇하느냐 엉터리 검사를 실시한다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고비를 당하였지만 점차 박멸협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국민의 협조를 얻어 기생충란의 보유율은 점점 저하하기 시작하여 박멸사업의 성과가 이런것이라 함을 알게 되었다. 이 기간 중의 증란보유율을 보면 회충 59%, 편충 66%, 십이지장충 7%, 간흡충 9%, 조충 2%로 나타났다.

1970~1975년 사이에는 회충 48%, 편충 45%, 십이지장충 2%, 간흡충 1%, 조충 0.05%로 되었다.

그러나 회충과 편충의 보유율은 아직도 높은 것은 인분을 비료로 사용함에 기인하며 인분처리와 철

각종 기생충 감염율(년도별)
(1910~1975년)



저하지 못하므로 회충의 보유율은 0으로 하기에는 아직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계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에 제시한 성적들은 1900~1975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을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각 학자가 제시한 성적을 통계 처리하여 제시한 성적이므로 지방실정에 잘 맞지 않는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필자=경희의대 기생충학 교수·醫博>

마을마다 집집마다
기생충 검사받자